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 찬반 ‘평행선’...개통 예정 2025년 교통 상황 예측해보니

인구·승용차 줄어 ‘교통난 해소 효과’ 미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의견도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연가운이 급부상하는 등 지역 내 논란이 뜨겁다.

2호선 찬성론자들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래 먹거리 사업 대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10여년간 도로 파기 공사에 따른 교통 스트레스를 견뎌야 할 만큼 2호선 건설이 부가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2호선 개통 시점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승용차 수마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2호선 건설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는 2025년 이후 광주 도심의 교통 상황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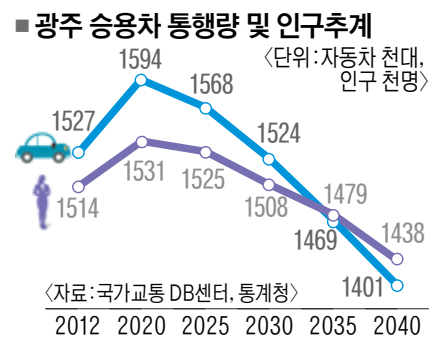
국가공식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해 봤다. 19일 국가교통 DB센터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40년)에 따르면 광주의 하루 평균 승용차 통행량은 2012년 157만7527대를 기록한 이후, 인구 증가로 2020년이면 159만4306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뚜렷해지면서 승용차 통행량도 급감해 2025년이면 156만8134대로, 불과 5년 만에 2만5000여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원년인 2025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만여대씩 16만7000대가 감소해 2040년이면 140만1000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KTX와 같이 국가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그렇듯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개통이 2030년이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있어, 2호선 건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재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심 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는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진입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2년 발표한 광주시의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12년 151만 4000명에서 2015년 152만5000명을 거쳐 2020년 153만1000명까지 늘어난 뒤, 2025년 152만5000명→2030년 150만8000명→2035년 147만9000명→2040년 143만8000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결국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점이면 광주의 인구와 승용차 통행량은 현재보다 줄어든 것이며, 광주 교통여건이 대도시 중 가장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호선 개통 효과(교통난 해소)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광주 도심 내 승용차 평균 주행속도(34.3km)와 출퇴근 소요시간(27.6분)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빠르다.

여기에 2호선을 건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도심 교통 인프라 구축의 지연 및 포기,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완·첨단 신도시 지역에 대한 신규 버스노선 철회 또는 축소 등이 불가피한 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도시철도 운영비 적자에 대한 부담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도시위상 제고,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시철도는 이용자 태반이 장애우와 노약자, 학생 등 교통 약자인 만큼 복지·서비스 시설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건설비 1조9053억원 중 국비만 1조1432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장의 계절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19일 오전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김치를 담그며 양념이 잘 났는지 맛을 보고 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중흥 2동 경로당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전달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계 부채 증가율 소득 증가의 2배 넘어

광주·전남 서민 살림 ‘팍팍’

광주·전남 지역 가계의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의 주소득원인 근로소득은 조금 늘어난 반면 집값 폭등세 속에 담보대출 등이 급증한 결과로, 결국 서민 살림살이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해 내놓은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남 지역 가계부채는 가구당 평균 294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조사가 진행된 3년 전 2021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5.6%(921만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은 49.8%(561만원)나 폭증했다. 여기에 신용대출(+37.9%)과 임대보증금(+56.1%) 등을 포함하면 전체 빛의 81.3%(2391만원)가 금융부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역시 지난 3월 가계부채는 3년전보다 362만원(10.3%) 늘어난 평균 3887만원이었다. 이 중 금융부채는 3070만원으로 전체 빛의 79%를 차지했다. 빛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로 보면 73.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지난 한 해 전남 지역의 가계소득은 평균 4132만원을 기록해 3년 전 3400만원 보다 21.5%(732만원) 늘어나

■ 광주·전남 가계소득·부채

〈3월 기준·단위:만원〉

구분	2014년	2012년	증감액(율)
소득	광주	4749	4271 478(11.1%)
	전남	4132	3400 732(21.5%)
부채	광주	3887	3525 362(10.3%)
	전남	2942	2021 921(45.6%)
자산	광주	2억6205	2억1852 4353(19.9%)
	전남	2억672	1억7799 8873(16.1%)
순자산	광주	2억2317	1억8327 3990(21.8%)
	전남	1억7730	1억5778 1952(12.4%)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는데 그쳤다. 이중 근로소득은 29.5%(600만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10.5%(142만원)와 2.5%(121만원) 증가했을 뿐이다. 광주도 478만원(11.1%) 늘여 4749만원으로 늘었으나 증가폭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당달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도 같은 기간 동안 12.4% 늘어난 평균 1억 7730만원에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중앙값(중위소득 가구)으로 따져도 가장 적었는데, 빛 갖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셈이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6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잔액은 총 30조86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조392억원(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빛원전 주변 갯벌서 방사성 물질 검출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분석

세슘-137 미량 검출 발표

영광 한빛원전 주변 갯벌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한빛원전 인근에서 갯벌·어류·해조류 등 10점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검출된 세슘-137은 허용치(식품 허용치 100 Bq/kg)를 밑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4곳이 지난 4~10월 영광·고려·월성·울진원전 반경 5km 이내에서 수산물, 해조류, 토양, 갯벌 등 시료 59점을 채취, 분석한 결과 총 12점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과 요오드-131이 검출됐다. 반면 대조군

인 김포시 농토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빛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시료 10점 중 2점(갯벌)에서 세슘-137이 1.46Bq/kg(원전 취수구 4km 지점), 1.69Bq/kg(원전 취수구 3km)이 각각 검출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전에서 상시 배출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으로 원전 주변 갯벌과 수산물 등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원전 주변 수산물이 국내산이라는 이유로 제한 없이 유통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세슘-137은 핵 연료 분열과정에서 생성되며 암 유발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조원배의
포워더 클래스

2면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雪花秀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상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가용성분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